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 윤 형¹⁾

한 세 영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한 간접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남학생 : 115명, 45.5%) 253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및 반응적 공격성에 대해 청소년의 자기보고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경로분석 및 간접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부모의 비도덕적인 가치 및 신념들이 양육법 중 유도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 왜곡된 인지적 기제가 내면화되어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쳤다는 점 뿐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와 도덕성 함양교육을 위한 부모교육현장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반응적 공격성

* 본 논문은 이윤형의 석사학위논문(2022)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2022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연합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evenhow@ewh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해나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좌절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경향을 가진다(서수균, 2007).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기 동안 공격성이 점점 더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Huesmann, Eron, Lefkowitz, & Walder, 1984; Loeber & Hay, 1997), 이는 비행, 낮은 학업 성취 및 약물 중독 등의 부적응적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Coie, Terry, Lenox, Lochman, & Hyman, 1995; Parker & Asher, 1987). 또한 이 시기 청소년들이 보이는 외현화 증상들은 사춘기에 누구나 겪는 단발적인 사건으로 보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며 예방하기 위한 개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이주리, 2008). 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적 행동에 대한 이슈는 현재까지 꾸준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연예계에서도 학교폭력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청소년기 공격성 및 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고 있다.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해응답률은 0.4%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2% 감소하였고, 전체 피해응답률은 1.1%로 2019년 1차 조사에 비해서는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개입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의미

한다. 매년 학교폭력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격성은 지속성을 가지며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백혜정, 황혜정, 2006; Barker, Tremblay, Nagin, Vitaro, & Lacourse, 2006; Barry et al., 2007).

공격성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외현적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의 형태이며,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Crick & Grotpeter, 1995). 또, 주도적 공격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반응적 공격성은 도발적인 상황 또는 위협을 지각한 상황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Dodge & Coie, 1987). 특히 반응적 공격성은 의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 및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보복하려고 하거나 충동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Steinberg & Lerner, 2004).

최근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격성의 유형 중 반응적 공격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권순화, 정채연, 이현수, 조은경, 2021; 박수진, 이동훈, 2021; 장희순, 이승연, 2013)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응적 공격성은 위협을 지각하거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 오류 과정을 거친다는 특징을 가진다(Dodge & Coie, 1987). 즉 반응적 공격성은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해 인지적으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내포된 공격성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반응적 공격성과 함께 기능적 차원으로 분류되는 주도적 공격성의 경우 냉담

성이라는 정서적 특질을 내포하고 있어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반응적 공격성은 자극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어(이홍, 김은정, 2012; Arsenio, Adams, & Gold, 2009; Dodge & Coie, 1987), 이를 중재하여 반응적 공격성을 낮추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처럼 청소년이 도덕적 이슈에 대해 인지적 왜곡을 하게 되면, 타인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왜곡과 관련된 반응적 공격성이 유발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적대적 귀인 오류를 보이는 반응적 공격성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들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개인내적 요인인 도덕적 이탈은 도덕적 규범을 이탈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가졌음에도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보이는 왜곡된 인지적 특성을 의미한다. 본인의 비도덕적 행위가 개인의 도덕적 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도덕적 정서 중 죄책감이 발생하게 되고,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자기 조절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도덕적 이탈은 자신의 해로운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설득을 통하여 합리화시키는 인지적 왜곡 과정이다(Bandura, 1991). 도덕적 이탈은 공격적 행동에 대한 허용 및 정당화의 보호 장치로써 작용하며, 본인의 비도덕적 또는 유해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이는 공격적 행동에 동조하게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덕

적 이탈 메커니즘은 본인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명명, 유리한 비교, 책임전가, 책임분산, 결과왜곡, 비인간화, 비난의 귀인을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즉, 자신의 유해한 행동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기도 하고, 타인에게 준 피해 및 손상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남들이 봐도 명백한 비인간적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여 자신의 행동이 나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집단 내의 역할로 돌려서 행동의 책임을 덜어내고, 결과 자체를 왜곡시키고, 피해자를 인간 이하로 간주해버리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도덕적 이탈을 많이 할수록 반응적 공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세영, 최혜선, 2019; Gini, Pozzoli, & Bussey, 2015a; Gini, Thornberg, Bussey, Angelini, & Pozzoli, 2021). 이처럼 청소년이 도덕적 이슈에 대해 인지적 왜곡을 하게 되면, 타인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왜곡과 관련된 반응적 공격성이 유발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의 주요 요인이 인지적 왜곡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인지왜곡의 측면 중 자신의 유해한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에 해당하는 도덕적 이탈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기는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나, 발달과정 안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지속된다는 점(Rohner, 2010)에 주목하였다. 또한 부모의 도덕성은 청소년 자녀의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가치 및 도덕관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어(White & Matawie, 2004),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지발달이론을 중심으로 도덕 발달을 설명한 이론에서는 5 ~ 10세 사이의 아동은 규칙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에는 규칙이 부모에 의해 정해졌으며,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10 ~ 11세에는 사회적 규칙이 다수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고, 필요에 따라 위반하기도 한다는 것을 지각하는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전환될 때에는 인지적 성숙과 중요한 사회적 경험들이 모두 필요하며, 부모의 지도는 아동의 도덕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Piaget, 1932, 1965).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올바른 도덕성이 전달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성인인 부모도 도덕적 이슈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하는 도덕적 이탈을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내재화된 도덕적 이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세영, 임혜은, 한아름, 2020).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의 도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로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응집력 및 정서적 친밀성이 낮아 부모의 도덕적 가치가 자녀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응집력 및 정서적 친밀성이 높아 부모의 도덕적 가치가 잘 전달되지만, 부모가 부도덕하여 자녀에게 부도덕한 가치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두 번째 가능

성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부모가 과도한 통제를 하거나, 부모 자신의 가치관을 자녀가 따르도록 하는 상황들이 만연하다. 한 국내연구에서는 부모의 기준에 자녀가 순응하도록 통제하는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김지미, 김정민, 2013; 손은혜, 한세영, 2019).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가진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녀의 도덕적 인지 및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 부모의 양육방식 중 유도라는 방법이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부모의 도덕적 이탈이 양육 및 훈육법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의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 및 훈육법 중 ‘유도(induction)’는 자녀의 도덕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Patrick & Gibbs, 2012). 유도의 전통적인 의미는 부모가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리드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부도덕적 가치관을 가진 경우 유도를 사용한다면 자녀를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며,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및 훈육방법 중 유도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도덕적 이탈 및 공격적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측면을 살펴 보았다.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parental induction

of moral disengagement)란 자녀의 도덕적 위반 행동에 대해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녀가 스스로의 위반행동을 해석하고 인지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 과정을 통해 부모도덕한 행동을 발달시키게 되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Zych, Gómez-Ortiz, Touceda, Nasaescu, & Llorent, 202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 척도는 폭력 또는 가해와 피해 상황에 대한 부모의 부모도덕한 도덕적 신념을 자녀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도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행동적으로도 유도한다는 점이 포함되어있다. 즉,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부모가 가진 비도덕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부모가 자녀의 도덕적 위반행동을 정당하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자녀의 비도덕적 상황에 대해 부모가 긍정적 태도를 보여 자녀로 하여금 모델링하게 하고, 자녀 또한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유도하는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그 예로, 자녀가 타인에게 공격받은 상황일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하고, 그 상황에서 보인 자녀의 비도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비도덕적 상황에 대해 큰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청소년에게 비도덕적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내면화시키고, 이로 인해 자녀는 도덕적 이슈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많이 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의 도덕

적 이탈 유도는 최근 Zych 등 연구(2020)에 의해 처음 정의된 용어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부모 자신의 도덕적 이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도덕적 이탈의 영향을 탐구한 연구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비슷한 맥락의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반응적 공격성 간의 상관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간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세 변인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는 적으나, 세 변인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관련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Zych et al., 2020)에 의하면, 청소년이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괴롭힘 가해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아질수록 반응적 공격성이 많이 나타났다(한세영, 최혜선, 2019; Gini et al., 2015a; Gini et al., 2021).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중

합하면, 청소년기는 자율성 및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아동기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적게 받는 시기이나, 청소년은 부모에게 부모의 도덕적 이슈에 대한 인지 및 가치관을 전달받아 도덕적 이탈 수준에 영향을 받아 공격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전달됨으로 인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높아지게 되고,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자녀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로써 도덕적 이탈 유도의 효과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부모의 도덕적 이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덕적 이탈 유도의 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Wang, Yang, Wang, & Lei, 2019)에 의하면,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은 아동학대와 사이버 폭력 가해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은 아동학대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였으나, 아동학대와 사이버 폭력 가해 사이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한세영 등, 2020), 어머니의 성격 및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자녀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손은혜, 한세영, 2019; Campaert, Nocentini, & Menesini, 2018).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

덕적 이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모도덕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나아가, 부모의 도덕적 이탈이 자녀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부모의 성에 따라 고찰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성 및 공격성 관련 태도에 대한 변인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격성 조장행동은 자녀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영, 2003). 이외에도 어머니의 합리-불합리적 양육행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보다 자녀의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안귀여루, 2010), 자녀에게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다는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경로에 대해 부모의 성별을 나누어 선행연구(한세영 등, 2020)를 고찰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았고, 이를 통해 직접 공격성과 전위 공격성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버지의 경우, 국내에서는 다뤄진 적 없으며, 국외에서는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수준 정도와 상관없이 청소년기 자녀의 도덕적 이탈과 사이버 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완화하지 못했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과 자녀의 도덕적

이탈 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다르게 보고된 바 있어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Wang et al., 2019).

종합해보면,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도덕적 이탈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또는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반응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자녀의 인지적 왜곡을 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부모의 도덕성이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 요인인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와 청소년의 내적 요인인 도덕적 이탈이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및 반응적 공격성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론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253명(남학생 : 115명, 45.5%)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증가에 따른 인지적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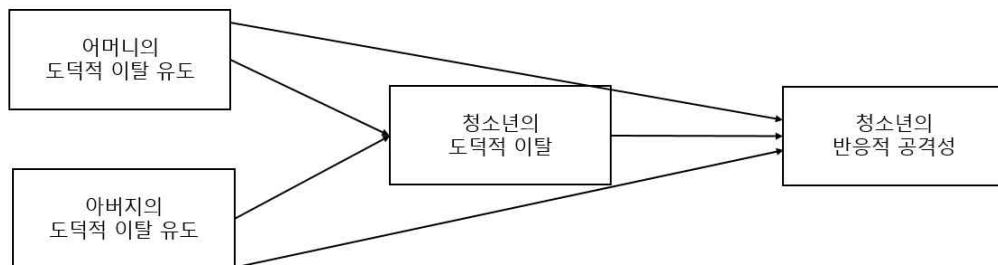


그림 1. 이론모형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53)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	남학생	115(45.5)	연령	15세	13(5.1)
	여학생	138(54.5)		16세	119(47.0)
학년	고1	128(50.6)		17세	111(43.9)
	고2	125(49.4)		18세	10(4.0)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2.4)	아버지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1.6)
	고등학교졸업	74(29.2)		고등학교 졸업	67(26.5)
	2, 3년제 대학졸업	26(10.3)		2 3년제 대학졸업	16(6.3)
	4년제 대학졸업	122(48.2)		4년제 대학졸업	133(52.6)
	대학원 졸업	21(8.3)		대학원 졸업	30(11.9)
	기타 (모름)	4(1.6)		기타 (모름)	3(1.2)

론 능력의 발달과 도덕적 이탈이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김지미, 김정민, 2013)를 근거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를 측정하므로 부모와 함께 성장한 경우만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128명(50.6%), 고등학교 2학년 125명(49.4%)이었다. 연령은 15, 16세, 17세, 18세로 각각 13명(5.1%), 119명(47.0%), 111명(43.9%), 10명(4.0%)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졸업이 122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 또한 4년제 대학졸업이 133명(52.6%)으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를 측정하기 위

해 Zych 등(2020)이 개발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 척도(The Perceived Parental Moral Disengagement Induction Questionnaire)를 아동학 전공 석사과정생인 연구자가 번역 후, 영어와 한국어를 병용하는 대학원생 1명에 의해 역번역을 하였다. 번역과 역번역본을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항들을 수정한 후에 아동학 전공 교수 1인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완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의 도덕적 위반을 정당화하는 다른 메시지가 그들 부모에 의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더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을 나눠서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각각 설문에 답하도록 진행하였다.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 척도는 ‘어머니/아버지는 특정인을 나쁘게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 등과 같은 10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었으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도덕적 이탈이 청소년 자녀에게 많이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와 관련된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관련된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은 Bandura 등(1996)의 도덕적 이탈 기제 척도(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MMDS)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서미정과 김경연(2006)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도덕적 정당화(4문항), 완곡한 명명(2문항), 유리한 비교(4문항), 책임 전가(4문항), 책임 분산(4문항), 결과 왜곡(4문항), 비인간화(4문항), 비난의 귀인(3문항)의 8개 하위 요인,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요인 별 문항들을 살펴보면, 도덕적 정당화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움하는 것은 괜찮다' 등으로, 완곡한 명명은 '다른 아이를 밀치거나 떠미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한 비교는 '심각한 불법 행동에 비하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등의 문항으로, 책임 전가는 '친구가 강제로 시켜서 나쁜 행동을 한 아이를 탓할 수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책임 분산은 '여럿이서 나쁜 행동을 하자고 결정 했다면 집단 내 한 아이만 나쁘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등의 문항으로, 결과 왜곡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사소한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해자의 비인간화는 '부드럽게 대해서 안 통하는 사람

들은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 등의 문항으로, 비난에 대한 귀인은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대개 그럴만한 행동을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도덕적 이탈을 8개의 하위요인으로 살펴보고 않고 하나의 변인으로 본 Gini, Pozzoli와 Bussey(2015b)와 한세영 등(2020) 선행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도덕적 이탈을 하나의 변인으로 보았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은 Buss와 Durkee (1957)가 제작한 BDH(Buss Durkee Hostility Inventory)에 기초하여 노안녕(1983)이 번안하고 김정임(2003)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 중 반응적 공격성에 한해서만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세영, 조연수, 2019; 한세영, 최혜선, 2019)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응적 공격성은 자신이 지각한 위협, 좌절, 도발과 관련한 분노가 발생하면서 적대적이고 충동적인 방어적 행동이 촉발되는 것을 의미한다(Crick & Dodge, 1996). 특히, 반응적 공격성은 적대적 귀인 편향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Arsenio et al., 2009), 타인의 행동과 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지왜곡이 발생한다. 문항들을 살펴보면 '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때리겠다.' 등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나는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해도 좀처럼 맞서서 같이 때리지 않는다.'에 대해

서만 역채점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었으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적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9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ewha-202108-0001-02), 서울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 1-2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설문문을 진행하였다. 학교 측 허락을 받은 후,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과 부모에게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전달하였다. 담임교사를 통해 설명을 들은 학생들 중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 한하여 가정으로 설명문 및 동의서를 가지고 가서 법정대리인의 사인을 받은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담임교사가 수거한 동의서를 전달받았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핸드폰 번호로 설문링크를 전달하여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1-2학년 193명은 온라인 리서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일주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기관의 패널 중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이에 해당하는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금지되었으며, 참여의사가 있는 연구대상자 본인이 연구대상에 적합한지(연구대상자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 가능 여부 등)를 판별하여 스크리닝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구대상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모두 온라인상으로 연구에 대한 정보와 목적 및 보상 등을 포함한 ‘연구 참여 설명문’을 읽고 전자 서명한 학생들에게만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2.0 (IBM Co., Armonk, NY)과 AMOS 22.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과 변수의 숫자를 고려하여 표본 크기 최소 100이상임을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수와 표본의 수의 비율이 최소 1:10을 넘었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Halinski & Feldt, 1970; Miller & Kuncze, 1973).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값, 표준편차와 범위를 확인하고, 모든 변인들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여부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본 분석에 앞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및 반응적 공격성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왜도의 절댓값은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댓값이 10보다 작으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Kline, 2015).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이 이를 충족하여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변인 간 상관관계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및 반응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든 주요 변인은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임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r = .53, p < .001$)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r = .56, p < .001$) 모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두 번째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r = .30, p < .001$)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r = .39, p < .001$) 모두 청소년의 반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 = 253$)

변인	<i>M</i>	<i>SD</i>	왜도	첨도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	1.83	.70	.96	.85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	1.82	.78	.89	-.22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2.58	.50	-.43	.42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2.20	.67	.50	-.18

표 3.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N = 253$)

	1	2	3	4
1.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	-			
2.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	.74***	-		
3.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53***	.56***	-	
4.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30***	.39***	.45***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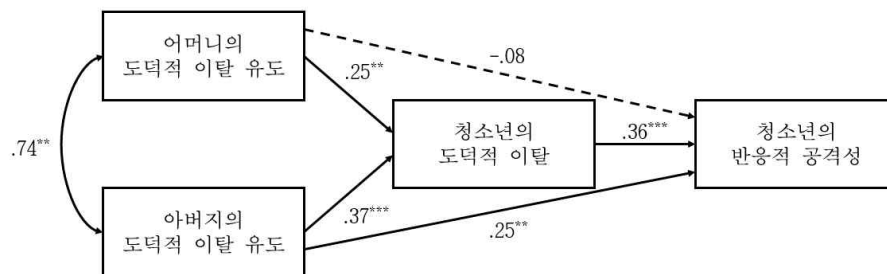
응적 공격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과 반응적 공격성은 정적상관을 보였다($r = .45, p < .001$).

3.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 모형은 자유도가 0인 완전적합모형으로 적합도가 산출되지 않았으며, 측정변인 간 경로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표 4, 5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 p < .01$). 따라서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 자녀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 $p < .01$. *** $p < .001$.

그림 2.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

표 4.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253$)

측정변인 간의 경로		<i>B</i>	β	<i>SE</i>	<i>CR</i>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	->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08	-.08	.08	-.93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	->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22	.25	.07	2.94**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48	.36	.09	5.26***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	->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18	.25	.06	3.29**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	->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24	.37	.05	4.84***

** $p < .01$. *** $p < .001$.

표 5.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한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253$)

잠재변인 간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 →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08	.09**	.01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 →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25*	.13**	.38**	.24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36**		.36**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 →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25**		.25**	.34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 →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37**		.37**	

주. 1)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2)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에 의한 결과임.

3)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치임.

* $p < .05$. ** $p < .01$.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간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5, p < .01$),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도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7, p < .001$). 또한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 = .36, p < .001$). 즉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도덕적 이탈이 높아지고, 도덕적 이탈이 높을수록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도덕적 이탈을 통한 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9, p < .01$), 아버지 또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 p < .01$).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계수는 -.70이고,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이 1.02에서 1.47로 나타났다으며,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표 6.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결과

변수	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70	.12	1.02	1.47

주. Boot LLCI :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I :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로 두 모형에서의 매개효과는 신뢰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 척도가 주로 타인의 행동을 공격적으로 해석하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척도를 사용해서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아버지에게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버지가 도덕적 이탈을 유도하는 언어적 반응 또는 축진을 보이면 청소년은 이러한 아버지의 자극에 대해 가시적이고 행동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경우에는 언어적 축진으로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 행동을 즉각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아버지는 언어 자극으로도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은 청소년의 직접 공격성 및 전위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한세영 등, 2020)와 일맥상통한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의 상관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국내외 연구에서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이 자녀의 공격성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보다 설명력이 낮다고 나타나 이와 맥을 같이하는 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아직까지도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성에 대해 허용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자녀가 어머니의 공격성에 대한 태도보다는

아버지의 공격성에 대한 태도를 관찰하는 상황들이 더 많았을 것이며, 이로 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로, 특히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 또는 도덕적 이탈을 내포한 말은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을 직접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지적 왜곡이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전달되어 유도하는 과정이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부모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모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모-자간의 상호작용과 같이 부모의 영향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한세영 등, 2020; Kochanska, Forman, Aksan, & Dunbar, 2005; Recchia, Wainryb, Bourne, & Pasupathi, 2014)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도(induction)’는 부모의 합리적 양육처럼 자녀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즉, 부모가 사용하는 유도는 청소년 자녀의 내면화 과정에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다만, 어떤 내용을 유도하느냐

에 따라 바람직한 가치관을 내면화시킬 수도 있고, 반사회적인 가치관을 내면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부모가 도덕적인 내용을 추론하고 유도하면 자녀는 도덕적 가치관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도덕적 이탈과 같은 왜곡된 반사회적 내용을 유도하면 자녀가 도덕적 이탈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메커니즘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도덕적 이탈은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반응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명명 등과 같이 인지적으로 왜곡하는 도덕적 이탈의 수준이 높으면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세영과 최혜선(2019), Gini 등(2015a, 2021) 연구들과 일치한다.

최종적으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 모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인지 왜곡 과정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전달되면서, 자녀는 자신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며 도덕적 이탈의 수준이 높아지는 인지적 왜곡의 메커니즘을 굳어지게 만들고, 이는 반응적 공격성을 더

많이 발생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 효과는 유의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는 한 세영 등 연구(2020)와 맥을 같이 한다.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수준 정도는 자녀의 도덕적 이탈과 사이버 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완화한다고 나타난 아버지 연구(Wang et al., 2019)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선행연구가 대상으로 한 공격성의 유형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공격성의 유형과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이 자녀에게 전달되면서 도덕성 영역의 인지적 왜곡과정인 도덕적 이탈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결과는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점인 청소년기에도 도덕적 판단 및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이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특정지어 살펴본 ‘유도’는 자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방식으로(Hoffman & Saltzstein, 1967), 이는 부모가 도덕적 이슈에 대해 왜곡된 판단 및 추론을 한다면 자신의 내재화된 도덕적 이탈을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자녀가 도덕적 이탈이라는 왜곡된 인지적 메커니즘을 내재화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인지왜곡과정의 특징을 가진 반응적 공격성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자녀의 도덕적 이탈 및 반응적 공격성에 전달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발견은,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 반면,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서로 다를 것을 뜻한다.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유도는 청소년 자녀의 도덕적 이탈이라는 인지적 기제를 발달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이 나타나도록 했다. 즉, 어머니의 도덕성 기준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내면화 과정을 거쳐 반응적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도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기제의 발달이라는 내면화 과정을 거쳐 반응적 공격성이 나타나도록 하지만, 아버지의 언어적 유도만으로도 청소년의 내면화 기제를 거치지 않고 반응적 공격성에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이라는 특정 문제행동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향후 연구의 심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자녀의 도덕적 이탈과 반응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인지적 기제 및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와 같은 양육방법에 대해 향후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반응적 공격성은 인지적 기제와 관련된 공격성이므로, 인지적 기제의 발달에 개입하여 반응적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도덕적 판단과 유도의 영향력에 대해 다루고, 청소년의 인지왜곡과정 및 도덕성과 관련된 상담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모 및 교사의 보고, 관찰 및 기록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 반응적 공격성에만 초점 두어 분석하였기에, 추후 환경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른 유형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인지적 기제에 대해 탐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집단은 부모의 도덕적 이탈 유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통제변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별을 나누어서 살펴본 기존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와 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였다. 반응적 공격성의 경우에도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연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도덕성 발달 및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 주로 어머니 또는 부모를 살펴봤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한 모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이탈 유도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의 선행요인을 살펴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 및 판단과 관련된 영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과 인지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이탈의 발달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도덕적 인지과정에 대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및 행동지도에 대한 개입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1).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권순화, 정채연, 이현수, 조은경 (2021). 사이버 공간에 의한 청소년의 피해-가해 중첩 (overlapping) 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8(11), 29-57.
- <https://doi.org/10.21509/KJYS.2021.11.28.11.29>
- 김정임 (2003).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미, 김정민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6), 13-29.
- <https://doi.org/10.5723/KJCS.2013.34.6.13>
- 노안녕 (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이동훈. (2021). 초·중학생 반응적, 주도적 관계공격성이 또래괴롭힘 피해 및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교육학연구*, 59, 239-267.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서미정, 김정연 (2006).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 유형의 판별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7(6), 35-51.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서지영 (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 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혜, 한세영 (2019).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2), 131-142.
- 안귀여루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이들의 학교적응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 2(1), 99-108.
- 이주리 (2008).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탐색. *인간발달연구*, 15(2), 87-102.
- 이 흥,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장희순, 이승연 (2013).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9-48.
- 한세영, 임혜은, 한아름 (2020). 어머니, 교사,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청소년의 직접공격성과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9(6), 809-821.
<https://doi.org/10.5934/kjhe.2020.29.6.809>
- 한세영, 조연수 (2019). 고등학생의 냉담-무정서와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4), 53-65.
<https://doi.org/10.5723/kjcs.2019.40.4.53>
- 한세영, 최혜선 (2019). 청소년의 냉담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6), 77-98.
<https://doi.org/10.14698/jkcce.2019.15.02.077>
- Arsenio, W. F., Adams, E., & Gold, J. (2009).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ral reasoning, and emotion attributions: Relations with adolescents'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80(6), 1739-1755.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9.01365.x>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Organization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48-287.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2-L](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2-L)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71(2), 364-374.
<https://doi.org/10.1037/0022-3514.71.2.364>
- Barker, E. D., Tremblay, R. E., Nagin, D. S., Vitaro, F., & Lacourse, E. (2006). Development of male proactive and reactive physic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8), 783-790.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5.01585.x>
- Barry, T. D., Thompson, A., Barry, C. T., Lochman, J. E., Adler, K., & Hill, K. (2007). The importance of narcissism in predicting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moderately to highly aggressive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33(3), 185-197.
<https://doi.org/10.1002/ab.20198>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4), 343-349.
<https://doi.org/10.1037/h0046900>
- Campaert, K., Nocentini, A., & Menesini, E. (2018). The role of poor parenting and parental approval for children's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8), 2656-2667.
<https://doi.org/10.1007/s10826-018-1097-1>
- Coie, J. D., Terry, R., Lenox, K., Lochman, J., & Hyman, C. (1995). Childhood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s predictors of stable patterns of adolescen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697-714.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6799>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778.x>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5.tb00900.x>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process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Gini, G., Pozzoli, T., & Bussey, K. (2015a). Moral disengagement moderates the link between psychopathic traits and aggressive behavior among early adolescents. *Merrill-Palmer Quarterly*, 61(1), 51-67.
<https://doi.org/10.13110/merrpalmquar1982.61.1.0051>
- Gini, G., Pozzoli, T., & Bussey, K. (2015b).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peer aggression and bystanding: 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3), 441-452.
<https://doi.org/10.1007/s10802-014-9920-7>
- Gini, G., Thornberg, R., Bussey, K., Angelini, F., & Pozzoli, T. (2021). Longitudinal links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morality with adolescents' peer agg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1(3), 1-16.

- Halinski, R. S., & Feldt, L. S. (1970). The selection of variables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7(3), 151-158.
<https://doi.org/10.1111/j.1745-3984.1970.tb00709.x>
-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5-57.
<https://doi.org/10.1037/h0024189>
- Huesmann, L. R., Eron, L. D., Lefkowitz, M. M., & Wald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120-1134.
<https://doi.org/10.1037/0012-1649.20.6.112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ochanska, G., Forman, D. R., Aksan, N., & Dunbar, S. B. (2005). Pathways to conscience: Early mother - child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and children's moral emotion, conduct, and cogni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1), 19-34.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4.00348.x>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371-410.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48.1.371>
- Miller, D. E., & Kuncie, J. T. (1973). Prediction and statistical overkill revisited.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Guidance*, 6(3), 157-163.
<https://doi.org/10.1080/00256307.1973.12022590>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trick, R. B., & Gibbs, J. C. (2012). Inductive discipline, parental expression of disappointed expectations, and moral ident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8), 973-983.
<https://doi.org/10.1037/0033-2909.102.3.357>
- Piaget, J. (1932/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on: Free Press. (Originally published 1932).
- Recchia, H. E., Wainryb, C., Bourne, S., & Pasupathi, M. (2014). The construction of moral agency in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helping and hurting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0(1), 34-44. <https://doi.org/10.1037/a0033492>
- Rohner, R. P. (2010). Perceived teacher acceptance, parental acceptance, and adjustment, achievement, and behaviour of school-going youths internationally. *Cross-Cultural Research*, 40, 1-11.
<https://doi.org/10.1177/1069397110366849>
- Steinberg, L., & Lerner, R. M. (2004). The scientific study of adolescence: A brief histor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1), 45-54.
<https://doi.org/10.1177/0272431603260879>
- Wang, X., Yang, J., Wang, P., & Lei, L. (2019). Childhood maltreatment, moral disengagement, and adolescents' cyberbullying perpetration:

- Fathers' and mothers' moral disengagement as moderato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5, 48-57. <https://doi.org/10.1016/j.chb.2019.01.031>
- White, F. A., & Matawie, K. M. (2004). Parental morality and family processe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morali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3(2), 219-233.
- Zych, I., Gómez-Ortiz, O., Fernandez Touceda, L., Nasaescu, E., & Llorent, V. J. (2020). Parental moral disengagement induction as a predictor of bullying and cyberbullying: Mediation by children's moral disengagement, moral emotions,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Child Indicators Research*, 13(3), 1065-1083. <https://doi.org/10.1007/s12187-019-09670-2>
- 1 차원고접수 : 2022.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2. 08. 28.
최종게재결정 : 2022. 09. 27.

The Effects of Parent's Moral Disengagement Induction on Adolescent's Reactive Aggression through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Lee, Yun Hyeong

Han, Sae-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s moral disengagement induction on adolescent's reactive aggression through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A total of 253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including measures of parent's moral disengagement and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and reactive aggr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path analysis. Also, bootstrapping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ther's moral disengagement induction had direct effects on adolescent's reactive aggression. Second, both mother and father's moral disengagement indu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Third,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reactive aggression. Fourth, parent's moral disengagement induction had an indirect effect on adolescents' reactive aggression through moral disengag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oral disengagement as a mediator between parent's moral disengagement induction and adolescent's reactive aggression. These results can be used on th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or moral enhancement programs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adolescent's reactive aggression and problem behavior .

Keywords: parent's moral disengagement induction,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reactive aggression